

한국 반공주의의 소설·사회학적 기능

강 진 호(성신여대)

<목 차>

- | | |
|-----------------------------------|--------------------|
| I. 현대소설과 반공주의 | IV. 정치적 강제와 창작 영역의 |
| II. 전쟁체험과 양가치적 사고방식 :
이법선, 선우휘 | 위축 : 정비석, 남정현 |
| III. 반공주의의 억압과 자기검열 :
김원일, 박완서 | V. 반공주의를 넘어서는 도정 |

I. 현대소설과 반공주의

20세기 후반기 우리 모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냉전이었다고 서구 사가들은 말한다. 냉전은 정치 현실을 지배했고 경제를 변형시켰으며 또 무수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쳤다. 냉전은 역사의 사유방식에서 다른 나라들의 문화 및 사회에 대한 접근방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중요한 영역에서 우리의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¹⁾ 한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반공주의(反共主義)는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을 조종하는 의식과 무의식을 지배하는 완강한 구조로 내면화되어 있다. 지난 수십 년 간 주입식 반공교육을 통해 각인된 그 무의식은 완강하게 자기 방어 기제를 작동시켜 남북한 화해의 흐름마저 사갈시하는 풍토를 만들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2-003-A00136)

1) 노엄 촘스키 외, 정연복 역, 『냉전과 대학』, 당대, 2001. 7면.

어 놓았다. ‘통일시대’라는 말이 범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말이 믿음으로까지 승화되지 못하는 것은 반공주의가 여전히 우리들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완강한 구조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반공주의는 공산주의에 대하여 적대적이고 배타적인 논리와 정서를 뜻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북한 공산주의 체제 및 정권을 절대적인 ‘악’과 위협으로 규정하고 그것의 철저한 제거 혹은 붕괴를 전제하는 말이다. 그것은 또한 한국 사회 내부의 좌파적 경향에 대한 적대적 억압을 내포하고 동시에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모든 형태의 대항 이념을 제압하는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다. 그런 까닭에 한국에서 반공주의는 일본이나 독일과는 달리 지금까지도 사회 성원을 강력하게 결속해온 접합체 혹은 정치적 반대파를 제압해온 터부로서 위세를 발휘해 왔다.²⁾

전후 현대문학은 바로 이 반공주의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 있었다. 작가들이 작품 활동을 하는 공간이 반공주의가 지배하는 현실이고 작품 역시 그런 현실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까닭이다. 더구나 195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문단을 주도했던 작가들의 대부분은 전쟁을 체험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반공의식을 내면화한 사람들이었다. 또 이승만에서 박정희로 이어지는 전체적 정권은 반공을 무기로 체제의 위약한 정통성을 유지했던 까닭에 작자들은 그런 현실에 구속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전쟁 이후 오늘까지 현대소설의 전개 과정이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이 반공주의의 폭압에 맞서면서 의식 깊숙이 각인된 그 폐해를 척결하는 지난한 과정이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이런 사실

2) 반공주의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참고하였다. 『한국전쟁이 반공이데올로기 형성과정에 미친 영향』(한지수, 고대석사, 1991), 『특집: 분단체제와 극우 반공이데올로기의 정치경제학』(정영태외, 『역사비평』, 1992 봄), 『분단과 한국사회』(김동춘, 역사비평사, 1997), 『탈분단 시대를 열며』(조한혜정, 삼인, 2001), 『북한 50년사1』(임영태, 들녘, 1999), 『우리안의 파시즘』(입지현 외, 삼인, 2000), 『미국과 냉전의 기원』(김정배, 혜안, 2001),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1』(박세길, 돌베개, 2003) 등.

은 작품의 이면에 숨어 있는 구조나 특성에 주목하자면 더욱 분명해지거니와 가령, 소설가는 어떤 식으로든 당대의 가치나 이데올로기와 무관할 수는 없는 존재들이다. 소설가들은 눈에 보이고 경험한 현실보다는 체제와 이데올로기가 표방하는 것 이면에 감추어진 현실의 심층을 드러내고자 하며, 그래서 소설가들은 일상에 스며 있는 반공주의의 억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이문구·김원일·김지하·이호철·조정래·박완서 등이 회고한 대로, 반공주의는 작가들의 정상적인 창작을 가로막는 결정적 장애요인이었다. 1975년에 이문구는 『월간중앙』에 1년 동안 연재한 『오자룡』이 왕조시대에 빗대어 지금의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긴급조치 9호 위반이라는 죄명을 받았고,³⁾ 1976년에 양성우는 장편저항시 「노예수첩」이 일본 『세카이(世界)』 1976년 6월호에 번역·수록되었다는 이유로 이른바 ‘국제 간첩단’으로 몰려 손을 짓이기는 고통을 겪었다.⁴⁾ 이러한 압력 속에서 작가들은 의식적으로(혹은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검열하고, 억압적 현실에 맞서기보다는 외면하거나 침묵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문학에서 반공주의를 문제 삼는다는 것은 작가의 의도나 작품의 소재만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근원적인 것 이라면, 작가에게 가해진 사회적 압력이나 그에 따른 창작상의 제약 등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반공주의가 작품에 미친 영향은 매우 광범위하게 확인되거니와, 본고에서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문학에 작용한 그것의 여러 기능들이다. 그것은 대체로 부정적인 형태로 드러나는데, 그 이유는 반공주의가 특정 이념과 집단을 부정하는 논리와 정서를 의미하고 따라서 자유와 창조성을 전제하는 문학의 본질과는 근본적으로 상충되는 까닭이다. 작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반공주의의 소설·사회학적 기능은 우선, 작중 인물들에 대한 편향된 묘사를 강요한 데서 확인된다. 이범선이나 선우휘 소설에서 단적으로 확인

3) 「내가 겪은 남산 : 이문구」, <중앙일보>, 2003, 11. 1.

4) 「내가 겪은 남산 : 양성우」, <중앙일보>, 2003, 10. 10.

되듯, 평화로운 삶을 파괴한 원흉으로 혹은 인륜을 짓밟는 폐륜아의 모습으로 공산주의자들은 제시된다. 이런 모습은 특정 이념과 집단에 대한 합리적 인식이 배제된 흑백논리(즉 양가치적 논리)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역사성을 갖지 못한 전도된 의식의 표현이다. 둘째로, 반공주의는 작가들에게 자기검열의 기제가 되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억압했고 심지어 자기기만의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김원일 초기 소설에서 목격되는 혼돈과 두려움의 심리라든가, 박완서가 반공주의의 압력 속에서 작중의 “모든 죽음을 빨갱이가 반동이라고 해서 죽인 것”으로 처리했다가 그 압력으로부터 벗어나면서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객관화된 시선을 회복한 것은 그런 사실과 관계될 것이다. 셋째로, 반공주의는 정권의 취약한 기반을 만회하는 도구로 이용된 까닭에 사회 비판적이거나 반미적인 내용을 일체 창작할 수 없게 만든 문학적 금기였고, 그로 인해 소설사에서 이른바 리얼리즘 계열의 작품을 극도로 위축시켜 놓았다. 정비석과 남정현 필화사건에서 목격되듯, 사회 비판적이거나 미국을 비판하는 내용을 ‘용공’과 ‘이적 행위’로 몰아붙임으로써 창작을 제한하였고, 그로 인해 전후 소설사는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본고는 이런 사실들을 이들 작가의 작품을 통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조정래의 경우처럼, 반공주의에 정면으로 맞서는 과정을 통해서 분단과 좌익의 문제를 새롭게 천착한, 반공주의가 역설적인 힘으로 작용한 경우도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본고는 이런 내용들을 작품을 통해서 살피고, 반공주의가 우리 소설사에 미친 영향과 기능을 규명하고자 한다.

II. 전쟁체험과 양가치적 사고방식 : 이범선, 선우휘

반공주의가 한국 사회에서 맹위를 떨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6·

25 전쟁 체험에 있다. 전쟁 이전의 반공주의는 지배계급이 정권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해 민중에게 강제된 측면이 강했으나, 전쟁 이후에는 그것이 민중들의 자발적 동의에 바탕을 둔 것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전쟁이라는 참혹한 체험을 통해서 민중들은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내면화하고 그것을 극도의 부정의식으로 간직하게 된 것이다. 전쟁은 상대방을 제거하는 것만을 중국의 목적으로 하며 따라서 이데올로기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정신병적 상황을 초래한다.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제를 죽이는 일을 성전이라고 불려야 하는 상황을 정상인으로서 감당하기는 힘든 것이다.⁵⁾ 이런 상황에서 민중들은 스스로 자신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주체성을 상실하고 점차 반공에의 선택을 강요받는다. 좌익이라면 그 가족 친지까지 무조건 검거·처단하고 무수한 사람들을 ‘빨갱이 협조자’ ‘동조자’ ‘앞잡이’의 누명을 씌워 학살하고 심지어 마을 주민 전체가 사살되고 마을이 소각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반공만이 생존의 유일한 길임을 터득하는 것이다. 여기서 목격되는 현상이 바로 사물을 흑백논리로 단순화시켜 받아들이는 양가적 사고방식이다. 공산주의자라면 무조건 악인이고 패륜아라는 인식이 그것이다.

이범선의 대표작 「학마을 사람들」 「오발탄」, 장편 『동트는 하늘 밑에서』 등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공산주의는 ‘악’이고 국군의 ‘선’이라는 흑백논리이다. 「학마을 사람들」에서 공산주의자로 돌변한 ‘바우’는 불량스런 외모와 빼뿌어진 심성을 가진 부정적인 인물로 제시된다. 바우가 공산주의자가 되어 마을에 등장함으로써 마을은 전통적인 질서와 기율을 잃고 혼란에 빠져든다. 학마을은 원래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가부장적 권위와 미풍을 존중하던 곳으로, 나이가 제일 많은 남자가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하며 이장을 맡아보던 곳이다. 그런데 바우가 인민위원장이 되어 나타난 이후로는 연장자인 이장을 대신해서 스스로 마을의 어른을 자처하는

5) 김동춘, 앞의 책, 58-9면.

상황으로 돌변한다. 하지만 ‘학’으로 상징되는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고 전통적 가치를 지켜온 사람들은 바우에 의해 강요된 그 인위적 권위를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흥분한 바우는 마을사람들에게 금기와도 같은 ‘학’에게 충을 난사하고, 후퇴하는 과정에서 이장 집에 불을 놓는 등의 패악을 부린 것으로 암시된다. 이렇듯 공산주의자는 전통과 인륜을 파괴하는 악의 화신으로 나타난다. 『오발탄』에서도 이런 사실은 동일하게 확인된다. 화자의 어머니에게 공산당은 “제 고장으로 제가 간다는 데” 그마저 불가능하게 만든 존재일 뿐만 아니라 정신이상자를 만든 근본 요인으로 암시된다. 주인공 철호에게도 공산주의는 그와 동일한 의미로 각인되어 있다. 남한은 자유롭고 또 그 자유로 인해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곳이지만 북한은 그마저도 불가능한 오직 죽음만이 있을 뿐이라는 게 철호의 생각이다. 작가가 작품은 통해서 전후의 참담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고 또 거기에 작품의 초점이 모아져 있지만, 그 한편에는 이렇듯 반공주의적 적대감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장편 『동트는 하늘 밑에서』에서도 이런 사실은 목격된다. 인민군의 공격을 피해서 남한으로 가고자 하는 피난민을 철수시키는 과정을 그린 이 작품에서도 북한 공산군은 부정적이고 악의 화신으로 나타난다. 수백 명의 노약자들이 엄동설한에 피난길에 오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단지 공산당이 쳐들어온다는 이유 때문이다. “오랫동안 공산당의 그 말할 수 없이 혹독한 학정에 짓눌려 온” 까닭에 사람들은 얼굴마저 ‘꺼멩게 이지러져’ 있었고, 그래서 공산당은 무조건 피해야 하는 존재로 제시된다. 우익 자치대원들에게 식량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일가족이 몰살당한 최노인은 공산당의 그러한 잔혹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 국군이 마을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인민군에게 알려려던 사내가 발각되는 과정에서 “빨갱이란 참 독한 놈”으로 제시된다. 반면 국군은 휴머니즘이 넘치는 자애로운 존재로 그려진다. 피난민들을 무사히 해안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이중위는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돌격대를 자청해서 나

서고, 기관총 사수인 신상사 역시 총탄을 맞아 죽어가면서도 부하들을 챙기며, 주인공 엄대위 역시 돌격대에 나갔던 부하들을 구하다가 장렬하게 죽음을 맞는다. 이렇듯 이 작품에서도 공산당은 악이고 국군은 선한 존재로 그려지는데, 이런 시선은 지주 집안의 자식으로 재산을 강탈당한 뒤 월남했던 이범선의 반공적 체험이 깊게 작용한 데 원인이 있다. 그로 인해 남과 북은 선과 악의 이분법적 도식으로 이해되는 양가적 사고를 드러내는 것이다.

선우회는 이범선보다 한층 심각한 형태로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한 작가이다. 그의 소설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공산주의에 대한 극단의 거부감이 한층 도식화된 형태의 흑백논리로 표현된 데 있다. 선우회는 인물의 외형만을 보고 그것이 공산주의와 비슷하면 모두 공산주의로 매도하고 부정한다. 이를테면, 어떤 인물이나 집단이 폭력, 살인, 교조적 논법, 인민재판 등 공산주의자들이 즐겨 사용했던 방식과 유사한 행태를 보이면 그 실체를 확인하지도 않고 바로 공산주의자로 치부하고 부정하는 식이다. 따라서 거기에는 역사의식이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공산당은 악이라는 양가적 감정만이 두드러진다. 이런 사실은 「불꽃」에서 전형적으로 확인되거니와, 여기서 선우회는 평화로운 삶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은 전쟁이고 그 근본에는 ‘청부업자’에 지나지 않는 ‘공산당’이 도사리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을 근절하지 않고는 결코 정상적인 삶을 향유할 수 없다는 인식을 보여준다.⁶⁾

「불꽃」에서 작가의 반공의식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곳은 고현이 학병에서 탈출한 뒤 겪게 된 일련의 체험을 서술한 대목에서

6) 선우회가 반공주의에 깊게 침윤된 것은 무엇보다 그의 성장 과정이 반공주의에 전면적으로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알려진 대로, 선우회는 1922년 평북 정주(定州)에서 소지주의 아들로 태어났다. 경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해방과 더불어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로 입사하였고, 잠시 인천중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육군 소위로 입대(1948)한 뒤 1958년 대령으로 예편할 때까지 반공의 최전선에서 생활하였다. 그는 젊은 날의 거의 대부분을 일제치하, 해방, 전쟁이라는 역사의 격변기 속에서 보냈고, 특히 전쟁 중에는 ‘역사의 광기’와 공산당의 만행에 맞서 몸소 투쟁의 선봉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선우회는 자연스럽게 반공의식을 내면화한 것으로 보인다.

다. 여기서 작가의 분신이나 다름없는 주인공 고현이 학병에서 탈출한 것은 우선, 3·1 운동으로 아버지를 잃은 뒤 홀어머니 밑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내면화하게 된 할아버지의 개인주의적 가치관 때문이다. 그는 할아버지처럼 어느 단체나 집단에 소속되는 것을 싫어했던 까닭에 학병에서 탈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아시아의 해방’이라는 허구적 구호에 중독되어 무자비한 살상을 자행하는 일제의 “남을 괴롭히는 선민의식과 값싼 영웅주의” 때문이었다. 즉, 일제는 위황한 구호를 내걸고 전쟁을 독려했으나 그 이면에는 자기들이 아니면 결코 아시아를 해방할 수 없다는 “집단주의적 광기”를 숨기고 있었는데 고현은 그것을 간파하자 바로 목숨을 걸고 탈출을 감행한 것이다. 그들의 광기가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그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광기가 단지 일제에게만 목격되는 것은 아니었다. 연안의 팔로군에게서도 그것은 동일하게 발견되었는데, 곧 탈출 과정에서 우연히 접하게 된 연안의 ‘팔로군’(1937-1945년에 일본군과 싸운 중국 공산당의 주력부대의 하나)에게서 고현은 또 한번 그런 집단주의적 광기를 목격한다. 남루한 의복과 보잘것없는 음식으로 힘들게 연명하면서도 그들의 눈동자가 빛났던 것은 민족 해방에 대한 신념이 아니라 “어느 때고 그들이 활기를 칠 수 있는 세계가 오고야 말리라는 확신”임을 간파한 것이다.

그곳은 주로 팔로군이 유격 활동하는 지역이어서 그 길로 연안으로 안내되었다. 그는 여기서 숨을 돌리기 전에 먼저 놀랐다. 토굴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그들의 양식은 수수밥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느 때고 그들이 활기를 칠 수 있는 세계가 오고야 말리라는 확신이었다. 현은 중국 거지같은 초라한 모습을 한 김모라는 노인을 접하고 아연했다. 인민의 해방이 멀지 않아서 이루어지리라고 예언하는 김 노인은 실은 까닭 모를 복수심을 만족시키는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었다. 공산주의 이론은 정감록(鄭鑑錄)과 다름없는 운명의 예언서. 다르다면 그것은 과학의 이름을 붙인 예언서라는 것, 김 노인은 그것을 놓고 잃어진 자기 반생의 몇 배를 미래에 충당할 수 있는 노다지판을 그

리고 있었다.

그렇지 못하면 초라한 그 모습이 사진틀 속에 담겨 벽에 걸리거나 그 이름이 당사(黨史)의 찬란한 한 페이지를 차지하리라는 개기름같이 번쩍거리는 욕망.

인민의 해방이란 방정식에 절대적인 의미를 붙이고 이를 갈고 있는 이들은 말하자면 청탁 없는 청부업자였다.⁷⁾

팔로군이 왜 ‘확신’을 식량삼아 항일전의 최전선을 담당했는지, 그들의 복수심이 과연 ‘까닭모를 복수심’이었는지? 현의 사고 속에는 숭고한 ‘개인’ 대 광기어린 ‘집단’이라는 이분법만이 존재할 뿐 ‘역사’의 문제는 배제되어 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단지 ‘남에게서 괴로움을 받기 싫은 것처럼 나도 남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신조’를 지키면 그만이라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이다.

이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기에 그는 일제치하의 민족운동마저도 그 의미를 간파하지 못하고 부정하는 가치의 전도현상을 보여준다. 즉, 현이 중학에 적을 두었던 시절, 젊고 의욕 넘치는 M선생은 학생들을 모아서 독서회를 꾸리고 있었다. 일제의 감시 속에서 꾸리는 독서회였고 또 “모종의 과격한 행동”까지 도모하는 단체였지만, 결국 일제의 감시를 피하지 못하고 M선생은 투옥되고 만다. 그런데 M선생은 투옥된 뒤에도 학생들에게 쪽지를 보내는 등 활동을 중단하지 않았고, 이에 고무된 학생들은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든다. 그렇지만 독서회에 가담하라는 M선생의 요구를 거절했던 고현은 그런 분위기를 목격한 뒤 M선생을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우상화, 흥분의 도가니, 소년 잡지에나 나오는 모험담. 팔인조 소년 모험단 단장”이라고 조소를 던질 뿐이다. 고현은 이들에게서도 동일한 ‘광기’를 발견한 것이다. 고현의 시각에는 ‘일제의 침략주의 = 팔로군의 집단적 광기 = 민족운동가의 모험심’이라는 등식이 성립되고 그들 각자의 고유한 특성과 역사적 가치는 무시되고 마는 것이다. 고현은 공산주의자들에게서 목격되는 이런 광기가 결국 해방 후로 이어져 조선생 부친과 같은 무고한 사람을

7) 선우휘, 『불꽃』, 『현대한국문학전집 12』, 신구문화사, 1981, 339면.

인민재판으로 내몰고 할아버지의 처절한 죽음을 몰고 온 것으로 이해하는데, 고현의 이런 사고방식이 문제인 것은 그것이 일제가 민족운동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구사한 폭력의 방법⁸⁾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는 데 있다.

즉 공산주의자들을 잔악하고 파렴치한 존재로 보는 시각은 일제가 만주 일대에서 무장을 갖추고 일제에 저항했던 세력들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약탈과 방화를 일삼는 ‘비적(匪賊)’, ‘도적’으로 몰아붙인 것과 같은 것으로, 일제치하라는 우리 민족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일제는 만주 일대에서 활동하던 팔로군과 무장 독립단을 일반 양민의 재산과 생명을 빼앗는 ‘비적’으로 몰아붙임으로써 이들을 고립시켜 소탕하려 했고 국내의 민족운동마저 그런 명목으로 가혹하게 탄압하려 했지만, 주권을 박탈당한 피식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 행위는 국권을 찾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독립운동 단체들이 폭력과 방화와 같은 물리력을 구사했던 것은 그 외에는 달리 일제에 맞설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작가는 그런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협박과 테러’라는 그 외형만을 보고 그들을 ‘파렴치한 공산주의자’와 동일시한 것이다. 현이 그 동안의 소극적인 행동 방식을 청산하고 “청부업자들을 거부하자. 떠들어대어야 인생은 더욱 의미할 뿐이라는 것을 뼈저리도록 알려 주자.”⁹⁾고 선언하고 공산주의자들에게 맞서는 것은 그런 이유라 하겠다. 하지만, 고현의 행동은 3·1 운동을 주도하다가 희생된 아버지의 그것과는 사뭇 다른 것으로, 아버지의 행동이 ‘민족이 독립되어야 한다’는 역사적 가치에 의해 규율된 것이라면, 현의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적대감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말하자면 자신의 체험만이 유일한 가치판단의 기준이고 따라서 객관적 사실이나 역사성의 문제는 배제되어 있다. 그런 이유로 그는 ‘팔로군’의 역사적 성격을 간취

8) 김동춘, 앞의 책, 48면.

9) 신우휘, 앞의 책, 361면.

하지 못하고 일제와 동일시하거나, ‘청부업자’와 ‘서민’을 양분하는 양가적 사고를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연호를 위시한 공산주의자 전부를 간단하게 ‘청부업자’로 규정할 수는 없고, 또 그들에 대비된 일반 서민을 가치 판단의 지고한 기준으로 삼을 수도 없을 것이다.¹⁰⁾

선우휘의 소설에서 목격되는 휴머니즘이 진정한 의미의 그것이라기보다는 소박한 인정주의에 머무는 것은 반공주의의 개입으로 이렇듯 현상과 본질을 착각한 데 원인이 있다. 흔히 전쟁을 제재로 한 소설은 전쟁의 무모함이나 잔혹한 의미를 고발하고 표현함으로써 전쟁의 비인간성과 반윤리성에 대해 비판적이고 동시에 보편적 휴머니즘을 기조로 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선우휘의 휴머니즘은 특정 집단을 부정하는 양가적 사고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그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배타적이다. 그의 소설이 전후문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반향을 갖지 못하는 것은 그런 이유라 하겠다.

Ⅲ. 반공주의의 억압과 자기검열 : 김원일, 박완서

반공주의적 신념을 절대화해서 역사의식까지 몰각한 선우휘와는 달리 대부분의 작가들에게 반공주의는 심리적 금기와도 같은 일종의 트라우마(trauma)로 작용하였다. 유년기의 억압과 좌절이 한 사람의 성격을 결정하는 근원적 기제가 되듯이, 반공주의로 인한 자기검열과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은 작가들의 상상력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고 위축시켰다. 반공주의는 공산주의에 대한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고문이나 연좌제와 같은 원초적 공포와 결합되어 있었고, 그래서 분단과 이데올로기 문제를 파헤치고자 할 경우 작가들은 자칫 반공주의의 검열에 걸려들지 않을까 하는 심한 강박관념에 시달렸

10) 이동하, 「선우휘의 ‘불꽃’ 연구」, 『우리문학의 논리』, 정음사, 1988, 132-154면.

다.11) 이 과정에서 작가들은 특히 전쟁의 본질을 천착하고 또 분단 현실을 문제 삼고자 할 경우 한층 심각한 공포에 사로잡혔는데, 그것은 전쟁을 문제 삼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이데올로기를 탐구하지 않을 수 없고, 또 350만 명에 육박하는 죽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과 미국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특히 남북간의 체제 경쟁이 본격화된 박정희 집권 이후 한층 심해져서 작가들에게 “북한에 대한 표현의 상한선은 ‘감상적 민족주의 언저리거나 당국에 의해 철저히 도식화된 반공 가이드라인 내’로 제한”되어 있었고, 그래서 “한국전쟁을 소재로 다룬 작품에서 전쟁의 절반을 담당할 북한 쪽 이야기를 빼버리”거나 “유보할 수밖에 없”¹²⁾었다고 한다.

김원일 초기 소설에서 목격되는 강박관념은 그런 사실과 관계된다. 그는 특히 좌익의 아버지를 두었던 까닭에 해방과 더불어 본격화된 아버지의 좌익 활동과 월북, 그로 인한 유년의 가난과 공포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강박관념을 형성해 놓았다. “아버지가 월북함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비밀을 장자로서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관념을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훈계조로 교육받았는데, 이것이 일종의 억압 심리로서 내 의식 속에 존재했다.”¹³⁾는 진술은 그런 사실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실제로 작품을 통해 볼 때 김원일의 유년을 지배한 것은 공포와 혼란의 정서였다. 초기의 「1961, 알제리」 「이야기꾼」 「전율」 「죽어 눈뜨리」 「상실」 「않는 바다」 「어둠의 혼」 「절망의 뿌리」 등에서 목격되는 악마적이고 광기 어린 인물들의 모습은 어쩌면 작가의 무의식 속에 내재된 왜곡된 자의식이 소설의 외피를 쓰고 나타난 형

11) 이러한 사실은 작가들의 다음과 같은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박완서의 「구형(球型) 예찬」(『두부』, 창작과비평사, 2002) 및 좌담 「6.25 분단문학의 민족동질성 추구와 분단 극복의지」(『한국문학』, 1985,6), 김원일의 대담 「인간과 문학의 심오한 본질을 향한 도전」(『문학정신』, 1990,5), 홍성원의 「보완과 개작에 대한 짧은 해명」(『남과 북』, 문학과지성사, 2000) 등.

12) 홍성원, 「보완과 개작에 대한 짧은 해명」, 『남과 북』, 문학과지성사, 2000, 6면.

13) 김원일 외, 「(대담)인간과 문학의 심오한 본질을 향한 도전」, 『문학정신』, 1990. 5, 20면.

국이다. 여기서 인물들은 한결같이 출구가 없는 어두움의 세계에 짓눌려 살아간다. 살인이나 강간, 고문 등의 극단적인 형태로부터 절망과 공포·당혹감 등의 내면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형태의 폭력적 상황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 출구 없는 어두움은 거대한 외부적 상황의 부조리성, 혹은 음험한 폭력성 앞에서 무력한 개인이 감당해야 할 좌절과 자기 파멸의 극단적인 삶의 양태들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김원일 문학의 한 결절점으로 평가되는 「어둠의 혼」(73)은 작가의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상처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서 작가는 일제의 지배와 해방기의 좌우 대립과 전쟁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격동기에 좌익에 앞장선 아버지의 행동을 어린 화자의 시선을 통해서 포착한다. “닭을 채어 가는 들개처럼 늘 숨어서 어디론가 해매고 다녔던 아버지”, “산도둑 같이 털석부리로 또는 선생님처럼 국방복을 입고 문득 나타났다 짹째 사라져버리는 요술쟁이”와도 같았던 아버지의 모습이란 어린 작가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다. 한 밤중 순경들이 밀어닥쳐 집안을 뒤지는 날 밤 어린 작가의 머리 속에 떠오르는 아버지의 모습은 밋다 못해 원수와도 같은 것이었다. “죽어 뿌리라, 어디서든 콧 죽고 말아 뿌리라. 나는 아버지를 두고 몇 십 번이나 이 말을 되씹었는지 모른다.”는 절규는 아버지에 대한 화자의 증오와 두려움의 감정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또한, 어머니는 수시로 순경들에게 불려가 매점질을 당해야 했고, 순경들이 뜯금없이 밀어닥친 날 밤에는 모두가 공포에 떨어야 했다. 이런 날 밤에는 “아버지가 밋다 못해 원수로 여겨”지기까지 했던 것이다. 가족들에게 이렇듯 크나큰 고통만을 남긴 채 개죽음을 당하고 만 아버지였던 까닭에 아버지의 존재란 화자에게 수수께끼일 수밖에 없게 된다. “빨갱이 짓을 하면 무조건 죽인다”는 세상에서 “아버지는 왜 빨갱이 짓을 했을까?”¹⁴⁾ 아버지의 참혹한 죽음을 목격하면서 화자가 갖게 되는 이런 의문이

14) 「어둠의 혼」에서의 인용은 김원일 중단편집집 『어둠의 혼』(1권)(문이당, 1997)에 의거한다.

곧 김원일의 유년기를 지배한 상처의 원형이자 동시에 김원일 소설의 원점인 것이다. 이후 김원일은 『노을』과 『불의 제전』을 통해서 부친과 부친의 진실을 부단하게 천착한 것은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박완서는 김원일과는 달리 반공주의에 따른 자기검열로 인해 작중 화자의 태도와 인물의 형상까지 왜곡해서 제시한 한층 심한 검열의 양상을 보여준다. 그것은 그녀가 반공주의의 압력으로 심한 중압감을 느꼈다는 반증이 되거니와, 그것은 구체적으로 1985년 이전과 그 이후의 작품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동일한 체험을 각기 다른 형태로 제시한 데서 드러난다. 즉, 자전적 계열의 작품인 『목마른 계절』(72), 「부처님 근처」(73), 「엄마의 말뚝 2」(85),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92), 『그 산이 정말 거기에 있었을까』(95)를 살필 때 1985년 이전에는 공산주의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았고 또 오빠의 죽음을 인민군이 사살한 것으로 처리했으나, 1990년 이후에는 그와 정반대로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오빠의 죽음 역시 남·북한 모두에 의한 것으로 서술한다. 반공주의의 압력으로 작가는 과거의 진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자기기만의 모습을 보인 것이다.

여러 수필에서 언급한 대로, 박완서가 작가의 길로 들어선 동기는 전쟁 기간에 겪은 참혹한 체험 때문이었다. 전쟁을 겪으면서 작은 아버지와 오빠를 잃었고, 또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 갈래야 갈 수 없는 실향의 아픔을 맛보아야 했다. 여기서 오빠의 참혹한 죽음은 박완서를 괴롭힌 평생의 상처로 자리 잡는데, 박완서의 오빠는 한 때는 좌익에 관여했으나 곧 전향했고 이후 남·북한의 이념적 알력 속에서 죽은 인물이었다. 박완서가 보기에 오빠가 사회주의에 심취했던 것은 “20대에 공산주의자가 아니면 하트가 없고 30대에서 공산주의자라면 브레인이 없다”던 말과 같이 일시적이고 유행적인 것이었다. 젊은이라면 당대 현실에 울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런 심리에서 사회주의에 잠시 빠져들었으나, 얼마 후 그 본질을

깨닫고는 바로 전향하였다. 그런데, 좌익에 가담했다가 전향한 경력으로 인해 “한 쪽에선 오빠를 반동으로 몰아 갖은 악랄한 수단으로 어르고 공갈치고 협박함으로써 나약한 지식인에 지나지 않았던 그를 마침내 폐인을 만들어 놓고 말았고, 다른 한 쪽에선 폐인을 데려다 빨갱이라고 죽치기가 맥이 빠졌는지 슬슬 가지고 놀고 장난치다 당장 죽지 않을 만큼의 총상을 입혀서 내팽개”¹⁵⁾쳤다. 오빠는 이 과정에서 서서히 죽어갔고, 이 참담한 죽음을 지켜보면서 박완서는 “불치의 상처”¹⁶⁾를 입었다고 한다. 그녀가 소설가로 나선 것은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전쟁 체험을 소재로 한 『나목』을 비롯한 『목마른 계절』 『그 해 겨울은 따뜻했네』 『엄마의 말뚝』 『그 산이 정말 거기에 있었을까』 등은 모두 그런 개인사의 상처를 담고 있다. 그렇다면 박완서는 등단 이후, 작품을 통해서 그런 상처를 사실적으로 고백하고 이념과 체제를 비판하는 방향을 취해야 했을 터이다. 그렇지만 반공주의가 지배하는 현실에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즉, 오빠를 죽인 당사자의 하나가 국군이고 그들 역시 공산당 못지않은 만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고백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던 까닭이다. 이런 내용을 감히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나아가 그것을 표현했을 때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탄압에 대한 두려움이 박완서의 의식을 사로잡았던 것이다.

박완서 저는 스무살에 6·25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의 체험들이 문학적으로 굉장한 보고(寶庫)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이도 아닌 열아홉, 스무 살 때 전쟁 체험을 했다는 점에 저는 대단히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그래서 비슷한 체험을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덜 쓴 것 같은 그 미진함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미진함은 바로 석연치 않은 점이었고, 그 석연치 않음은 제가 작품을 쓰면서 정직하지 못한 구석을 남겨놓고 있었기 때문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6·25에는 분명히 두 가지 형태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반

15) 박완서, 「나에게 소설은 무엇인가」, 『박완서 문학앨범』, 웅진출판, 1992, 124면.

16) 앞의 글, 123면.

동이라고 해서 이복에서 죽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빨갱이라고 해서 이남에서 죽인 죽음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모든 죽음을 빨갱이가 반동이라고 해서 죽인 것으로만 썼었습니다. 이렇게 정직하지 못했던 것, 정직할 수 없는 것이 앞으로의 전쟁문학에서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양쪽이 다 이데올로기에 눈이 멀어 얼마나 비인간적이며 잔혹했던가를 똑같이 증언하고 싶은데 못했던 것, 이것은 제 경우만이 아니라 다른 작가들에게도 공통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¹⁷⁾ (강조-인용자)

『목마른 계절』 『부처님 근처』 『엄마의 말뚝 2』 등에서 작가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나, 오빠의 죽음을 실제 사실과는 달리 ‘인민군의 만행’으로 처리한 것은 그런 사실과 관계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그 산이 정말 거기에 있었을까』(95)와 비교할 때, 『목마른 계절』에서 화자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다. 일찍이 B고녀 시절에 민청 지하조직에 관여했다가 정학 처분을 당한 경험이 있고, 전쟁 초에도 거기에 깊게 관여하고 있었던 까닭에 작품 초반에서 화자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비교적 호의적인 태도를 드러내지만 전쟁을 겪으면서는 점차 그런 태도에 변화를 보여준다. 인민군 소년이 노인에게 총부리를 겨누면서 “반동의 새끼”라고 격한 반응을 보이는 광경을 목격하면서 화자는 “새 공화국의 억센 발걸음에 짓밟힌 낡은 질서 가운데 노인들의 권위”마저 용납하지 못하는 공산주의의 경직된 일면을 알게 되고, 또 당(黨)을 자처하는 위원장 최치열 등과 함께 선전과 모금 활동을 하면서 당을 앞세워 온갖 비인간적인 만행을 합리화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깨닫는다. 특히 인민군에 차출되어 징집당하는 오빠를 목격하고는 ‘생명의 소중함’과 더불어 그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공산주의의 비정함을 깨닫는다. 이런 사실들이 상세하게 서술되는 까닭에 이 작품은 마치 전쟁의 참혹함을 증언하고 고발하는 반공소설이라는 느낌마저 준다. 게다가 작가를 소설가로 이끈 계기가 되었던 오빠의 죽음 역시 이들의 만행으로 처리하여 그

17) 박완서 외, 「(좌담) 6.25 분단문학의 민족동질성 추구하고 분단 극복의지」, 『한국문학』, 1985.6, 48-49면.

런 느낌은 한층 강화되는데 가령, 작품에서 오빠를 죽인 것은 인민군 황소좌였다. 황소좌가 생각하기에 적어도 이번 전쟁은 무산 계급, 피압박계급을 위한 투쟁이었다. 그래서 자신은 가족까지 잃고 혈혈단신으로 남조선 해방의 최전방에 섰으나, 가난뱅이들까지 등을 돌린 상황에 직면해서는 도저히 전쟁의 명분이 서고 혁명 사업이 고무적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런 반감에서 황소좌는 남조선 인민들을 “영원히 해방될 길이 없는 천성의 노예들”이라 생각하고, 양갓음하듯이 진이 오빠에게 총을 난사한다.¹⁸⁾ 말하자면 오빠의 죽음을 실제 사실과는 달리 공산당의 만행으로 처리하여 반공주의를 의식한 흔적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이다. 1973년에 발표된 『부처님 근처』에서 오빠가 ‘인민군 동지’에게서 사살 당한 것으로 서술된 것이나, 1985년의 『엄마의 말뚝2』에서 ‘인민군’에게 총상을 입고 죽어간 것으로 그려진 것은 모두 그런 이유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반공주의가 완화되고 탈냉전의 분위기가 확산된 1990년 이후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드러난다. 공산주의에 대한 시각이 한층 균형 잡힌 모습을 보이고 또 오빠의 죽음 역시 사실 그대로 그려진다. 먼저, 화자는 『목마른 계절』에서보다 한층 적극적으로 자신의 과거사를 고백하여 이전과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여준다. 『목마른 계절』에서는 좌익에 자발적으로 관여했다가 점차 그로부터 멀어진 사실을 회상하면서 좌익에 대한 증오감을 토로했으나, 『그 산이 정말 거기에 있었을까』에서는 좌익에 관여한 행위가 자발적인 것이기보다는 다분히 상황적 필요에 의한 것으로 회고된다. 적 치하에서 민청에 관여한 것이나 또 국군 치하에서 향토방위대에 관여한 것은 모두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보신책이었다. 병자인 오빠와 노모, 그리고 올케와 어린 자식들을 홀로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화자는 단지 살기 위해서 인민군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었

18) 박완서, 『목마른 계절』(전집6), 세계사, 1994, 321면.

고, 그런 상황에서 미력하게나마 협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군 치하에서는 자신의 부역 행위와 오빠의 과거사를 숨기기 위해서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듯 이 작품은 이전과는 사뭇 다르다. “화가가 자화상 한두 장쯤 그려보고 싶은 심정”으로 작품을 썼고, 따라서 “기억을 꾸미거나 다듬는 것을 최대한으로 억제한 글짓기”¹⁹⁾를 했다는 고백처럼, 작가는 여기서 거짓 없이 과거사를 고백하고 있고, 그에 힘입어 작품은 이전과는 달리 한층 사실적인 느낌을 주는 것이다. 오빠의 죽음이 『목마른 계절』과는 달리 수필에서 언급한 것과 똑같은 형태로 제시된 것도 이런 형평심(衡平心)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화자는 사뭇 담담한 태도로 오빠의 죽음이 남북한 양 체제의 압력에 의한 것이었음을 고백한다. 화자가 보기에 오빠는 전향을 한 이후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인민군과 국군이 번갈아 지배하던 서울에서의 생활은 전향한 경력이 있는 오빠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었는데, 인민군 치하에서는 국군의 패잔병이 아닌가 하는 의심 속에서 숨을 죽여야 했고, 국군 치하에서는 과거 좌익이었던 경력이 탄로 날까봐 안절부절못하였다. 오빠는 그런 상황에서 “사색이 되어 좌불안석, 시시각각 언어 능력조차 퇴화해” 갔고, 총 맞은 지 팔 개월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변한 것이다.

오빠는 죽어 있었다. 복종의 주검도 차가웠다.

그때가 몇 시인지 우리는 아무도 시계를 보지 않았고 왜 엄마 혼자서 임종을 지켰는지도 묻지 않았다. 엄마도 자다가 옆에서 끼쳐 오는 싸늘한 냉기 때문에 깨어났을지도 모른다. 체온 외엔 오빠가 살아 있을 때하고 달라진 건 아무 것도 없었다. 눈 똑바로 뜨고 지키고 앉았었다고 해도 아무도 그가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을 포착하지 못했을 것이다. 총 맞은 지 팔 개월 만이었고, ‘거기’ (사별한 전처의 집-인용자) 다녀온 지 닷새 만이었다. 그는 죽은 게 아니라 팔 개월 동안 서서히 사라져 간 것이다. 우리는 아무도 그의 임종을 못 본 걸 아쉬워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의 너무도 긴 사라짐의 과정을 회상하고 있었다.²⁰⁾

19) 박완서, 「작가의 말」,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웅진출판, 1992, 5-7면.

이런 사실을 담담하게 기록할 뿐 작가는 죽음에 따른 절통한 심정이라든가 현실에 대한 적개심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다. 그래서 작품은 감정의 양극이나 적의가 없는 담담한 심경만이 드러날 뿐이고, 『목마른 계절』에서처럼 반공주의로 인한 자기검열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는다. 작품에서 남·북한에 대한 비판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것도 이런 사실과 관계될 것이다. 작품에서 인민군이나 국군에 대한 비판은 양적으로 거의 비슷하고 또 비판의 내용 역시 남·북한 모두의 이데올로기적 잔혹함을 향하고 있다. 적치하의 생활을 회상하며 인민공화국에서 살고 싶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과 상식이 전혀 안 통하는데 있”다고 말하며, 또 국군에 대해서도 결코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남한 체제 역시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불합리와 비인간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 이데올로기만을 앞세워 인간을 외면한 양 쪽의 갈등으로 인해 오빠가 죽었기 때문에 남북한 모두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1990년대 들어서 박완서가 과거의 사실들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1987년의 민주화투쟁과 1989년 동구의 몰락과 같은 탈냉전의 분위기에 힘입어 반공주의의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반공주의는 작중 화자나 인물의 형상마저 왜곡한 작가들에게 작용한 트라우마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박완서 소설의 굴절 과정은 그 자체가 한국이라는 억압적 현실에서 작품 활동을 해야 하는 작가들의 비극을 상징한다고 하겠다.

IV. 정치적 강제와 창작 영역의 위축 : 정비석, 남정현

20) 박완서,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웅진닷컴, 1995, 177-178면.

6.25 전쟁 이후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심한 적색 공포증에 시달렸던 것은 무엇보다 그것을 정치권에서 악용한 데 원인이 있다. 전후 냉전의식에 힘입어 역대 정권들은 반공주의를 의도적으로 조장하여 정권의 취약한 기반을 만회해 왔는데, 특히 이승만 정권은 전후의 혼란된 민심을 수습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미명 아래 분단된 현실과 북한의 호전성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세뇌시키면서 극단의 부정과 억압적 사고를 확산시켜 놓았다. 남한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한 공산주의 집단이 존재하고 자칫 방심했다가는 언제든지 6.25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강요된 경계심은, 민족의 생존이라는 최상의 가치를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비롯한 어떠한 가치도 희생될 수 있다는 전제적 상황을 조성하였다. 아직도 정치권은 반공주의를 ‘색깔 논쟁’의 형태로 반복해서 악용하고 있거니와,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학적 역기능이 바로 사회 비판적이거나 반미를 내용으로 하는 작품을 창작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반공을 국시로 내세운 정권 아래서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비판했다가는 자칫 ‘빨갱이’로 매도되어 혹독한 고문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또 반미란 정권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행위였다. 미국은 우리를 공산화로부터 지켜주었고 또 그 원조로 전후 복구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미국을 반대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더구나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취약한 정통성을 만회하기 위해서 미국의 원조에 의지해서 근대화 정책을 추진했고, 그래서 미국을 비판한다는 것은 반국가적인 불경죄를 범하는 것과는 같은 것이었다. 1950년대에서 군사 정권이 종식된 1980년대 중반까지 우리 소설에서 리얼리즘 계열의 작품, 특히 체제 비판적이거나 반미적인 내용의 작품이 거의 씌어지지 못했던 것은 그런 사실과 관계되는 것이다.

종전 직후인 1954년에 <서울신문>에 연재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

문을 일으킨 『자유부인』에 대한 공안 당국의 조사는 ‘용공’을 빌미로 사회 비판적인 내용을 탄압한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다분히 통속적인 구성과 내용으로 되어 있는 이 작품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것은 당시 사나운 기세로 몰아닥친 반공주의의 한파 때문이었다. 작품의 내용은 사실 간단하다. 저명한 국어학자의 아내인 오선영은 종전 직후 사회 전반에 만연된 자유주의적 분위기에 휩쓸려 들면서 춤바람이 나고, 사교계에 진출하면서 자연스럽게 고관 부인들과 어울린다. 이 과정에서 남편들의 정치적 비리가 화제에 오르고, 또 선형의 오빠이자 국회의원인 오병헌의 정치적 무능과 선거 부정 사례가 소개된다. 여기다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는 선영 주변 유한부인들의 호화로운 사교 행각과 향락적인 행태들이 제시되며, 정숙하던 오선영마저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남편의 제자뿐인 젊은 대학생과 춤바람이 나고 급기야 가출까지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지만 오선영은 자식과 남편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지 못하고 마침내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가정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용서를 구한다. 이러한 내용의 작품으로, 급진적인 것도 그렇다고 반사회적인 주장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당시의 현실을 그대로 그렸다”는 작가의 말처럼, 이 작품은 지도층의 부정과 도덕적 타락이라는 당대의 사회 현상을 사실적으로 포착해 놓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을 비판하여 정치권의 비리와 부정을 고발하는 등의 사회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자면 작가 특유의 가부장적인 의식과 여성 폄하적인 내용이 중심을 이루는 통속적 세태 소설이었다. 그런데도 작가가 치안국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는 등의 수모를 겪었던 것은, 정부 관료와 고관부인들의 비리를 고발하듯 그려 놓은 것이 국가의 이익을 실추시킨 것으로 오인된 데 있었다. 희극과도 같은 황산덕의 비판은 그런 당대 지배층의 태도를 대변한 것이다. 즉, “중공군 40만 명보다 더 무서운 해독을 끼치는 소설”이라든가, “북괴의 사주로 남한의 부패상을 살살이 파헤

치는 이적소설”이라 비난은 반공주의가 작가들에게 어떻게 작용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²¹⁾

지금 돌아보자면 하나의 해프닝일 수밖에 없는 일이었지만 일개 세대소설에까지 이렇듯 이적과 용공의 혐의를 내리 썩은 것은, 최소한의 비판마저도 허용하지 않았던 당대 정권의 무능을 스스로 폭로하고, 전쟁 직후 국민들의 가슴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던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통치의 도구로 이용한 비열한 작태였음을 고백한 것이다. 정치권은 그런 행태를 반복함으로써 창작의 풍토를 척박한 황무지로 만들고 작가들의 비판정신을 위축시켜 결국 통속적이거나 반공적인 작품만을 양산케 하는 문학사의 왜곡을 초래한 것이다.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소설에서 이른바 리얼리즘 계열의 소설보다 손창섭, 장용학, 김동리, 이범선 등의 전쟁에 대한 불구적 감정이나 반공주의적인 작품만이 양산된 것은 그런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1965년에 일어난 ‘남정현 필화사건’은 앞의 경우보다 한층 혹독한 탄압의 사례에 해당한다. 당시 『분지(糞地)』가 문제되었던 것은 작품의 내용과 소재가 ‘반미’로 오인된 데 있었다. 작가의 의도나 작품의 내용이 북한의 이념과 노선에 동조했기 때문에 반공법을 위반했고 그런 이유로 작가를 구속하여 징역 7년을 구형한 것이 ‘분지 필화사건’이다. 사건의 직접적인 발단은 이 작품이 북한의 기관지 『통일전선』에 전재된 데 있었다. 1965년 『현대문학』 3월 호에 발표된 『분지』가 2개월 뒤인 5월초 북한의 『통일전선』에 전재됨으로써 작품이 북한의 사주에 의해서 쓰인 것이라는 오해를 받게 되고, 검찰은 이를 빌미로 『분지』가 “반미 감정을 조성·격화시켜 (...) 북괴의 대남 적화전략의 상투적 활동에 동조”²²⁾했다고 몰아

21) 이 작품에 대한 당대의 반응을 엿볼 수 있는 글들은 다음과 같다. 정비석의 「작가의 말」(『자유부인』(고려원, 1985년판)과 황산덕의 비난에 반박한 「탈선적 시비를 박함」(<서울신문>, 1954.3.11)과 황산덕의 「<자유부인> 작가에게 드리는 말」(『대학신문』(69호), 1954.3.1.)과 「다시 <자유부인> 작가에게」(<서울신문>, 1954.3.14) 등.

22) 김태현, 「공소장」, 『분지』, 훈거레, 1987. 395-399면.

불인 것이다.

당시 박정희 정권이 이 작품에 대해서 이렇듯 과도한 반응을 보인 것은 미국이 전후 복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인 존재였다는 점 외에도 1965년 당시의 정치 현실과도 관계된다. 필화사건이 발발한 1965년은 한일협정 반대운동이 거세게 일어나서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했고, 특히 재경 문인 82명이 격렬한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했던 때였다. “금번 한일조약은 우리 국민 전체의 민족적 자존과 현실적 이해와 미래의 전망에, 경제·문화·정치적으로 한결같이 굴욕과 채침해와 실질적인 예측을 결과하고 있다.”는 이유로 문인들은 한일조약의 즉각적인 파기를 주장했는데,²³⁾ 한일협정을 통해서 근대화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던 정부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움직임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남정현이 중앙정보부에 의해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된 것이 바로 이 시점이었다. 그렇다면 ‘분지 사건’은 정권의 정략적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반공주의를 이용한 단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분지』가 ‘북괴의 대남 적화전략의 상투적 활동에 동조’한 작품일까? 작품을 정독해보면 공안 당국의 주장이 궤변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당시의 변론이나 또는 문학사에서 이미 검증된 사실이지만, 『분지』는 한 가정의 비극을 통해서 사회의 전도된 가치관을 비판하고 그것을 민족 주체성의 확립을 통해서 바로잡으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그런 사실은 작품의 중심에 놓여 있는 ‘어머니’의 형상과 그에 대한 홍만수의 태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작품은 홍만수가 죽은 어머니에게 고백하는 형식을 빌어서 서술되고, 홍만수는 자신의 행동이 시종일관 어머니를 잊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한다. “저의 과거란 모름지기 당신을 잊어버리기 위한 가열한 투쟁사의 한 장면이었다”는 고백은, 미국 여인을 납치한 행동 역시 어머니를 잊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었음을 말해준다. 홍만수에게 어머니는 독립투사였던 아버지만을

23) 한승헌, 「남정현의 필화, ‘분지’사건, 앞의 『분지』, 393면.

기다리다가 미군에게 겁탈 당한 뒤 불행하게 미쳐서 죽은, 그래서 자애스럽기보다는 오히려 “망측스러운 환상”으로 각인된 인물이다. 어머니는 독립투사인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해방이 되면 당당하게 돌아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래서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난 뒤에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남편의 귀국을 빌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정성껏 만든 태극기와 성조기를 앞세우고 환영대회에 나갔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반쯤 미쳐서 귀가한다. 홍만수가 이 어머니로부터 망측스러운 환상을 갖게 된 것은 이 이후의 행동 때문이었다. 그녀는 다짜고짜로 옷을 훌훌 벗어 던진 뒤 홍만수의 얼굴을 가랑이 사이에 갖다 대면서 겁탈 당한 음부를 보여주고, 이 뜻하지 않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홍만수는 망측스러운 환상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어머니의 행위는 단순한 기행이 아니라 외세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민족사의 비극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망측스럽다’는 표현 이상의 의미를 함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진술에서 드러나듯이, 그녀가 그토록 아버지를 기다려 온 것은 외세의 속박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에서였고, 그런 점에서 그녀의 유린당한 음부란 다름 아닌 민족의 순결성과 헌신을 상징하는 일종의 알레고리(allegory)이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있어서 육체란 남편에 대한 순결과 헌신을 상징하고, 그것이 짓밟혔다는 것은 주체의 존엄을 훼손당한 것이자 동시에 삶의 존재가치 자체를 부정당한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미군에게 짓밟힌 뒤 과감히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만수에게 취한 행동은 단순한 ‘기행’이 아니라 주체의 존엄을 훼손당한 열패감의 표현이고, 따라서 홍만수가 비취 여사를 납치한 것은 이 실추된 존엄성과 권위를 되찾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되는 것이다. 비취 여사가 홍만수에게 당한 뒤 비명을 지르면서 산을 뛰어 내려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고 “가슴이 후련해지”는 감격을 맛보았다는 것은 그의 행동이 이렇듯 어머

니로 표상된 과거사에 대한 부정의 심리에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작품 말미에서 홍만수가 태극기를 만들어 ‘미국 여인의 배꼽’에 꼽겠다고 다짐한 사실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태평양을 건너 대륙에 누워 있는 우윳빛 피부의 여인들의 배꼽 위에 태극기를 꼽겠다는 것은 미국을 침략하고 정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주체성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겠다는 것이고 동시에 그런 입장에서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 견딜 수 없이 썩어빠진 국회여 정부여, 나 같은 것을 다 뺏으로 알고 붙잡고 늘어지려는 주변의 이 허기진 눈깔들을 보아라. 호소와 원망과 저주의 불길로 활활 타는 저 환장한 눈깔들을 보아라. 너희들은 도대체 뭘을 믿고 밤낮없이 주지육림(酒池肉林) 속에서 헤게모니 쟁탈전에만 부심하고 있는가. 나오라, 요정에서 호텔에서 관사에서. 그리고 민중들의 선두에 서서 몸소 아스팔트에 배뺨기를 깔고 전세계를 향하여 일대 찬란한 데몬스트레이션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가. 진정으로 한민족(韓民族)을 살리기 위해서 원조를 해 줄 놈들은 깍소리 없이 해주고 그렇지 않은 놈들은 당장 지옥에다 대가리를 처박으라고 전세계를 향하여 피를 토하며 고꾸라질 용의는 없는가. 말하라 말하라.”²⁴⁾

이러한 작가의 일같은 오늘의 정치 현실에 비추더라도 여전히 유효하거나, 홍만수의 탄식은 이 참혹한 현실을 외면한 채 권력 쟁탈에만 눈이 먼 정치인들에 대한 질책이자 동시에 주권 국가로서 당당하게 국가의 위상을 바로잡으라는 강력한 요구인 것이다. 작품의 제목인 ‘분지(糞地)’가 의미하는 것도 바로 이 점이다. ‘똥으로 얼룩진 땅’이란 다름 아닌 민족의 주체성을 몰각하고 맹목적이고 비주체적인 외세 추종 세력이 횡행하는 현실에 대한 환멸어린 비아냥거림이다. 이렇게 보자면 홍만수의 행위는 외세에 짓밟힌 민족의 주체성을 찾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고, 이 소설은 반미소설이 아니라 왜곡된 민족사를 청산하고 민족의 주체성을 바로

24) 앞의 『분지』, 332면.

세우려는 의도를 지닌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당국이 미국을 모욕하고 반미를 선동한 것으로 몰아붙여 작가를 구속한 것은 언급한 대로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깊게 개입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적 탄압으로 인해 현대소설사는 엄청난 왜곡을 겪게 된다. ‘분지 필화사건’을 겪은 뒤 남정현은 정신분열증과 신경쇠약에 시달린 끝에 심신이 황폐화되다시피 했고 더 이상 외세의 문제를 천착할 용기를 잃게 된다. 최근의 한 좌담에서 아직도 신경안정제를 먹지 않으면 불안하고 공포증이 생겨서 정신을 집중할 수 없다는 고백처럼,²⁵⁾ 반공주의는 그의 상상력과 창작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박탈한 것이다. 한 재능 있는 작가가 냉전의 사슬을 뚫고 성장하기엔 분단의 천형이 너무 깊고 거대했던 것. 이 사건은 이후 다른 작가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주어 작가들은 감히 반미라든가 사회 비판적인 내용을 천착할 수 없게 된다.²⁶⁾ 하지만,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분단문제란 본질적으로 민족문제와 연결되고, 따라서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민족을 둘러싼 외세와의 관계 속에서 고찰되지 않을 수 없다. 분단 문제를 반제(反帝) 자주화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해방 이후부터 꾸준히 있어 온 것은 그런 까닭이다.²⁷⁾ 하지만, 불행하게도 1960년대 중반

25) 강진호 외, 『증언으로서의 문학사』, 깊은샘, 2003, 221면.

26) 앞의 『분지』, 376면.

27) 소박한 형태이긴 하지만 해방직후에 씌어진 염상섭의 「양과자갑」이라든지, 채만식의 「미스터 방」 「역로」 등은 민중의 입장에서 미국의 의미를 천착한 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이 미국에 대한 전면적 인식을 보이지는 못하지만 소박한 형태로나마 그것의 부정성을 문제 삼았다. 이후 외세를 문제 삼은 작품은 송병수의 「쇼리 킴」(57)과 하근찬의 「왕릉과 주둔군」(63)이다. 송병수가 주목한 것은 미군으로 인해 야기된 물신주의의 문제였고, 하근찬은 그것을 민족 주체성의 측면에서 조망하였다. 하근찬은 미군이 주둔하면서 야기된 전통과 권위의 실추, 분방한 성문화의 유입과 풍속의 타락, 물신주의 등을 날카롭게 포착했는데, 여기에 이르면 미군은 더 이상 원군(援軍)이자 구세주가 아니라 전통과 풍습을 파괴하는 ‘주둔군’으로 자리매김된다. 물론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미국에 대한 인식은 전면적이지 못하고 또 작가 특유의 회화적 필치로 인해 비판의 예봉이 둔화되어 있지만, 이런 인식을 통해서 우리 소설은 점차 외

까지 간헐적으로 진행되던 이러한 문학적 탐구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문학사의 공백지대로 방치되고 만다. 금기시되었던 이러한 소재들이 우리 소설사에서 다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1980년 후반이었다.

이렇듯 중세 암흑시대이나 있을 법한 마녀 사냥식 용공 음해가 되풀이되고 적색 공포증이 가공할 만한 마력을 발휘하는 사회에서 작가의 창조력이나 비판의식을 기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전쟁과 더불어 반공은 단순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사람의 생사를 좌우하는 물리력이 되었고,²⁸⁾ 그것을 역대 정권들이 반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작가들의 창작 환경을 철저하게 황폐화시켜, 급기야 1980년대 중반 이전까지 이른바 리얼리즘 계열의 작품을 영락(零落)하게 만든 것이다.

V. 반공주의를 넘어서는 도정

세계적인 냉전체제가 와해되고 탈냉전의 시대로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그 과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아직도 의식의 근저에는 공산주의를 사갈시하는 무의식적 적대감이 꿈틀대고 있고 또 그것은 언제든지 표면으로 튀어나와 사회를 경직시킬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작가들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작가들은 반공주의의 푸른 서늘 속에서 눈치껏 작품을 창작해야 했다. 우리 사회가 오랜 동안 반공주의의 사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주요한 원인은 아직도 분단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체제로 대치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공산주의는 여전히 적의와 부

세라는 금단의 영역을 개척하고 그 실체를 객관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8) 앞의 <중앙일보> 기사, 2003, 11. 1.

정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전쟁 이후 오랫동안 우리 문학이 이른바 순수문학과 대중·통속문학이 주류를 이룬 것도 그런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반공의 퍼런 칼날 앞에서 수많은 작가들이 사회 현실과 대결을 포기한 채 통속의 길을 걷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런 억압 속에서도 한편으로 그와 정면으로 맞서고, 그 고투를 통해서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고 창작의 영역을 넓혀온 작가들도 엄연히 존재하였다. 조정래의 경우처럼 목숨을 건 대결을 통해 반공주의에 과감히 저항하고 소설사의 새 지평을 개척하기도 했는데, 가령 『태백산맥』을 쓰는 과정에서 겪은 해프닝은 억압에 맞선 작가의 고통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현대문학』에 연재된 『태백산맥』 제1부가 단행본으로 출간된 뒤 조정래가 주간으로 있던 『한국문학』으로 연재가 옮겨지자 종로경찰서 형사들이 한 달에 한두 번씩 작가를 찾아와 “무엇을 썼느냐, 꼭 그렇게 써야 하느냐, 그렇게 써서 신상에 좋을 것 같으냐” 하는 등 집필을 구체적으로 간섭했고, 작가가 집필을 위해 나자로 마을에 가 있는 동안에는 사장에게 유사한 협박을 가하는 일이 연재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게다가 작가에게는 거의 매일 밤 협박 전화가 걸려왔고, 그런 위협 속에서 조정래는 가족에게 유언까지 남겼다고 한다.²⁹⁾ 이런 감시 속에서 불거진 사건이 이른바 1994년의 ‘『태백산맥』 필화사건’이다. 이승만의 양아들과 여덟 개 우익단체들이 작가와 출판사 사장을 국가보안법 위반과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함으로써 경찰청 보안국이 수사에 착수하게 된 이 사건은 보수 우익 단체들이 대거 연합하여 작품에 제재를 가하려 했다는 점에서 세인의 관심을 끌었다. 구국총동맹, 한국전쟁참전총동맹, 대한과월유공전우회 등등의 단체가 주장한 것은, “소설 『태백산맥』은 한국 현대사를 왜곡, 대한민국 건국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거나 기여한 명예를 손상시킴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정통성마저 훼손시켰을 뿐 아니라 북한 김일성 정권에 정통성을 부여하며 공산

29) 황광수, 「두 벌의 시나리오와 두 통의 유서」, 『레드 콤플렉스』, 삼인, 1997, 237-8면.

주의 혁명 사상을 조장하였고, 반미 감정을 고취시켜 대한민국을 미국 식민지로 인식시켰기에 피고발인 등을 민족과 역사의 이름으로 고발한다.”³⁰⁾는 것. 여기에 덧붙여 경찰은, 이승만 정권을 친미 괴뢰정부로, 빨치산을 인민 해방전사로, 6·25를 조국해방전쟁으로 표현한 부분 등이 이적성이 길다는 견해를 첨부하였다. 당시 이들 단체가 작품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시했던 것은 작가의 시각이 당시로는 매우 급진적이고 불온한 것으로 여겨진 때문이다. 작가는 작품에서 역사는 힘 있는 사람이 아닌 자각하는 민중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전제로, 해방 공간을 무대로 민족 분열적이고 민중 착취적인 세력에 맞서 자각하는 민중의 대표자로서 염상진과 하대치 등의 빨치산을 내세운다. 땅 주인인 지주들의 횡포와 그들만을 비호하는 경찰 세력에 대한 불만에서 농민들은 모두가 평등하게 살 수 있다는 좌익의 주장에 동조하고 마침내 공산주의자의 길을 걷게 되며, 이를 통해서 작가는 6·25의 원인을 조명하고 현대사를 민중 중심으로 보는 새로운 시각을 연 것이다. 그렇지만 우익이 보기에 이런 내용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좌익, 특히 빨치산을 중심인물로 두고 그들을 옹호하는 듯한 내용은 ‘용공’으로밖에 비치지 않았던 것이다. 더구나 양가치적 사고에 젖어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이승만 정권을 반민족적 집단으로 규정하고 비판한다는 것은 용공이자 반미로 비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이유에서 이들은 작품의 출판을 가로막은 것이다. 하지만 조정래는 그런 압력에 당당히 맞서는 치열한 작가정신을 통해서 역사의 진실을 천착해내고 소설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이다.

이렇듯 작가들은 반공이라는 시대의 금제에 맞서면서 숨은 진실을 파헤쳤고 소설의 영역을 넓혀왔다. 김원일(『불의제전』), 현기영(『순이삼촌』) 등이 해방 정국의 좌우 대립을 통해서 분단 현실을 천착한 것은 극우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민족사에 가한 좌익의 역할을 온당하게 평가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고, 전상국(『아베의 가

30) 앞의 글, 239면.

족』), 조정래(『황토』) 등이 외세의 작용과 그로 인해 왜곡되는 민족의 삶을 비판적으로 천착한 것은 반공주의의 허구를 꿰뚫고 외세와의 관계 속에서 민족사를 주체적으로 재구성하려는 필요성을 토로한 것이다. 또 황석영(『한씨연대기』 『손님』), 이문구(『관촌수필』), 한승원(『앞산도 첩첩하고』 『폐촌』), 윤홍길(『장마』) 등이 분단의 상처를 민중의 시각에서 수용하고 극복하려 했던 것은 이 모든 문제가 궁극적으로 민중의 입장에서 이해되고 해결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토로한 것이다. 이들 작품이 모두 반공주의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작품의 이면에는 반공주의와 맞서거나 혹은 절망하면서 고투해온 작가들의 힘겨운 고뇌가 깃들여 있다. 그래서 반공주의는 작가들의 창작과 상상력을 제약한 근원적 요소였으나 한편으론 작가들의 창작적 열정을 촉발시킨 동력으로 기능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오늘날 반공주의는 변화된 국제 정세로 말미암아 새로운 상황을 맞고 있다. 옛 소련의 붕괴를 비롯한 사회주의 블록에 속했던 국가들이 해체되면서 과거 국제 질서를 규정했던 이데올로기 대립이 이제는 크게 약화되었다. 한국에서 반공주의가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두 체제의 대립구조가 중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이지만, 국제적인 탈냉전의 기류는 이제 그 고리마저 이완시키고 있다. 물론 남한과 대치하는 북한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또 이런 현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 또한 완강하게 버티고 있다. 그렇기에 반공주의는 통일이 되기 전에는 언제든 합리적인 판단을 마비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살핀 대로, 반공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철저하게 유린하는 억압의 장치라는 사실을 기억하자면 그에 대한 자각은 더욱 철저할 필요가 있다. 반공이라는 동아줄로 뽕뽕 묶인 상황에서 분단의 본질을 해명하고 과거의 진실을 복원하는 것은 난망한 일이다. 사상의 자유가 없는 사회에서 문화와 예술이 꽃필 수 없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창작은 심리적

억압과 사회적 금제에서 벗어나 다원적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적 풍토에서 가능한 일이다.

주제어 : 반공주의, 소설사회학, 박완서, 이범선, 선우휘, 남정현, 김원일, 조정래, 트라우마, 양가치적 사고, 자기검열, 필화사건

K C I

〈참 고 문 헌〉

- 「내가 겪은 남산 : 양성우」, <중앙일보>, 2003, 10. 10.
- 「내가 겪은 남산 : 이문구」, <중앙일보>, 2003, 11. 1.
- 강준만 외, 『레드 콤플렉스』, 삼인, 1997.
- 강진호 외, 『증언으로서의 문학사』, 깊은샘, 2003. 197-232면.
- 강진호, 『탈분단시대의 문학논리』, 새미, 2000. 106-126면.
- 김동춘, 『분단과 한국사회』, 역사비평사, 1997.
- 김원일 외, 「(대답)인간과 문학의 심오한 본질을 향한 도정」, 『문학정신』, 1990. 5. 20면.
- 김정배, 『미국과 냉전의 기원』, 해안, 2001.
- 김태현, 「공소장」, 『분지』, 흔겨레, 1987. 395-399면.
- 노엄 촘스키 외, 정연복 역, 『냉전과 대학』, 당대, 2001. 7-50면.
- 박세길, 『다시쓰는 한국현대사1』, 돌베개, 2003. 제2부 1장-6장.
- 박완서 외, 「(좌담)6.25 분단문학의 민족동질성 추구하고 분단 극복의지」, 『한국문학』, 1985. 6. 48-49면.
- 박완서, 「구형(球型) 예찬」, 『두부』, 창작과비평사, 79-92면.
- 박완서, 「6.25 분단문학의 민족동질성 추구하고 분단 극복의지」, 『한국문학』, 1985, 6.
- 박완서, 「나에게 소설은 무엇인가」, 『박완서 문학앨범』, 웅진출판, 1992.
- 박완서,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웅진닷컴, 1995.
- 박완서, 『목마른 계절』(전집6), 세계사, 1994.
- 선우휘, 「불꽃」, 『현대한국문학전집 12』, 신구문화사, 1981.
- 이동하, 「선우휘의 ‘불꽃’ 연구」, 『우리문학의 논리』, 정음사, 1988. 132-154면.
- 이호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국학자료원, 2001. 211면.
- 임영태, 『북한 50년사1』, 들녘, 1999.
- 임지현 외, 『우리 안의 파시즘』, 삼인, 2000.

- 정비석, 「탈선적 시비를 박함」, <서울신문>, 1954, 3.11.
- 정비석, 『자유부인』, 고려원, 1985년판.
- 정영태 외, 「특집: 분단체제와 극우 반공이데올로기의 정치경제학」, 『역사비평』, 1992. 봄
- 조한혜정 외, 『탈분단시대를 열며』, 삼인, 2001
- 한승헌, 「남정현의 필화, ‘분지’사건」, 앞의 『분지』, 375-394면.
- 한지수, 「한국전쟁이 반공이데올로기 형성과정에 미친 영향」, 고대석사, 1991.
- 홍성원, 「보완과 개작에 대한 짧은 해명」, 『남과 북』, 문학과지성사, 2000, 5-17면.
- 황산덕, 「<자유부인> 작가에게 드리는 말」, 『대학신문』(69호), 1954, 3.1.
- 황산덕, 「다시 <자유부인> 작가에게」, <서울신문>, 1954, 3.14.

K C I

[Abstract]

A Study on the novel-sociological function of the Korean Anti-Communism

Kang Jin ho

This is an article written to analyze the Novel-Sociological function of the Korean Anti-Communism. Anti-Communism means the exclusive logic and distorted emotion against Communism, specially the North Korean Communist and the leftist' action and tendency in the South Korea. The main concept of this article is firstly the sociological function of the Korean Anti-Communism, secondly the relation of novels and Anti-Communism which through Seonwoo-hwee, Nam-Junghyun, Park-wanseoo' novels. By this article' analysis, the Anti-Communism' novel-sociological function is an oppressed element of novelist' creative activity. For instance, Seonwoo-hwee can not recognize the truth of the Chinese Communists' independence movement against Japanese imperialist so far as the Korean' that. Nam-Junghyun can not writes a subject matter such as anti-American and anti-imperialism. In addition to Park-wanseoo can not describe realistically about the figure of her's older brother' death killed by the South & North Korean's army. She distorted her older brother' figure in novels because of the anti-communist's oppression and self-inspection. In this way, Anti-Communism compelled

novelist to distort novel' contents, a subject matter and characters.

Key words : anti-communism, novel-sociological function, contents, a subject matter, character

K C I